

제 6 강 춘추전국시대의 철학사조

▲ 유위有爲와 무위無爲

- 제자백가들 중에서 후대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유가와 도가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연속적(몸을 가지고 신진대사를 함)인 동시에 불연속적(동물하고는 다름)이기도 하다. **유가는 유위有爲 사상**으로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도가의 무위無爲 사상**은 이러한 자기를 거부하고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출현

- 주(周)나라 평왕(13 대)이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를 '동주'시대라 하는데, 이를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눈다. 전국시대가 되자 '天下'는 더욱 어지러워졌고 패권정치霸權政治가 이어졌다. 이 시대에 이르러 보다 다양한 제자백가가 펼쳐졌고, 문헌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학파'라는 개념이 보다 뚜렷해지고 지식인(사士계층)의 위상은 훨씬 고양되었다. 제자백가들 중에서도 양주의 설(극단적 생명사상, 내 털을 한 올 뽑아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해도 싫다는 극단적 개인주의 사상)이나 유가, 도가, 법가, 묵가(절대평등사상을 주장, 특히 노동자들의 절대평등 공동체를 소망), 음양가(기, 음양오행을 중요시 함. 이것은 제자백가의 공통적 관심사였음. 동북아 사상의 공통과목으로 도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처럼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자연과학은 공통됨), 명가(논리학, 역설의 문제),纵横가(당대의 엄청나게 복잡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정치적 비전에 대해 탐구함), 농가(농사천하지대본, 농업을 강조) 등이 중요한 위치를 점했으며, 특히 유가와 도가는 훗날 쌍벽을 이루는 사상으로서 이어진다. 여기에 불가가 덧붙여지면서 유불도儒佛道/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를 이루게 된다.

▲ 유가(儒家): 맹자와 순자

-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도를 이었기에 훗날 '유가儒家'로 분류되었다. 사마담(사마천의 아버지)에 의해 여러 제자백가들의 사상이 '가'로 정리되고 틀과 범주가 확립되었다. '가', '~logy', '~ism'은 모두 후대에 정리해서 붙여주는 틀에 불과하다. 철학 공부의 단위는 '텍스트→인물→학파(현상학, 마르크스주의, 유가 등)→시대나 지역→철학 전체'의 순으로 한다. 철학을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텍스트를 먼저 읽지 않고 어떤 '주의'나 '학파'에 대해서 읽는다. 공부에 있어서는 텍스트를 읽고 나서, '학파'나 '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맹자는 공자의 도를 순정純正하게 이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때문에 성리학의 기초적인 인물로 간주되었다. 순자는 유가로 분류되지만 도가(노자의 도가)와 법가 등을 포함하는 잡가적 성격을 띤다(순자의 도가사상은 노자를 의미, 순수한 도가는 장자이고 '노자'는 노장사상 외에도 제왕학, 통치술의 책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법가에 영향을 주기도 함). 맹자와 순자 공히 전국시대라는 난세를 치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유가의 기본 목표이다. 이 점에서 **이들의 사상은 유위의 사상이며 구성의 사상**이다. 양자 공히 양주의 개인주의나 도가의 무위사상, 목적의 절대평등사상을 비판(비현실적, 인륜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했다.

▲ 『맹자』와 『순자』의 저술 과정

- 『맹자』의 저술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맹자와 제자들이 함께 썼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7 편이며 외편 4 편이 있었다고 하나 소실되었다. 제목은 『논어』처럼 글 앞머리를 따서 붙였다. 주요 주석서로는 동한 趙岐의 『孟子章句』, 남송 朱熹의 『孟子集注』, 청대 焦循의 『孟子正義』, 다산 정약옹의 『孟子要義』 등이 있다. 『순자』는 순자 자신이 쓴 부분도 있고 제자들이 쓴 부분도 있다. 20 권 32 편으로 되어 있는 대작이다. 한대 유향에 의해 정리되었다. 한·漢대에 이르러 훈고학의 발달로 텍스트가 정리, 확립되었다.

▲ 맹자의 천(天)사상

- 공자와 달리 맹자는 천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을 전개했고,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연상시킨다(소크라테스나 공자는 문자 그대로 성인들이고, 플라톤이나 맹자는 존재론적 사고를 도입하여 구체적 사상을 확립). 맹자의 천은 인격신이 아니라 천지의 이법(理法)으로서의 천이다. 천제(天帝)에서 천(天)은 주의 신이고 ‘천이 제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제(帝)는 은의 신이며 상제, 인격신이자 제사의 대상이고 점술의 근거가 된다(서양의 인격신 deus 를 상제로 번역함). 상제 개념은 도교의 옥황상제로 이어진다. 성리학에서의 ‘리(理)’는 맹자의 이런 생각을 잇고 있다.

▲ 맹자의 제(帝) 사상과 맹자의 대화

만장: 요가 천하를 순에게 내준 일이 있습니까?

맹자: 아니다, 천자는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다.

만장: 그렇다면 순이 천하를 차지한 것은 누가 내준 것입니까?

맹자: 하늘이 (왕위를) 내준 것이다.”(만장상 5)

▲ 맹자의 심(心)사상

-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맹자에게서도 인간을 하늘에 이어주는 것은 성(性)이다. **심(心)은 성(性)(서구의 이성)과 정(情)(감정)으로 구성**되며, 성(性)은 인간이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근거이다. 성(性)은 형이상학적인 것, 사유와 판단, 도덕심의 근원이다. 정(情)은 형이하학적인 것 즉, 현실적인 모습(인욕), 오욕칠정 등을 말한다. 인간이 성(性)을 추구하면, 즉 마음을 다하면(진심(盡心)) 하늘은 응한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 “군자가 공업(功業)을 창시하여 전통을 수립하면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다. 그대가 그런 경우에 어찌 하는가?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할 뿐이다.”(양혜왕하 14)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안다.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알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지니고 본성을 함양하면, 하늘을 섬기게 된다.”(진심상 1)

▲ 순자의 사상

- 순자는 천(天)을 인(人)과 구분하고자 했다(천인지분(天人之分)). 이것은 도덕경의 ‘천지불인(天地不仁)’과 모종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상으로 노자는 유가의 하늘이 내포한 도덕적 형이상학적 가치를 비웃는다. 이처럼 순자는 맹자와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만물을 분별하지는 못하며, 땅은 사람들을 그 위에 살게 하지는 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리지는 못한다.”(禮論) 나아가 하늘=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왕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天論) 때문에 순자는 “하늘과 땅은 군자를 낳았고, 군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王制)고 말한다. 현대적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진화의 산물인데, 그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다. 나아가 하늘을 잘 알고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이 점에서 순자는 근대적 자연관을 일찍이 확보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가의 기본 입장(현대식으로 도덕 형이상학)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맹자와 순자

▲ 맹자의 사단(四端)

- 천의 의미를 인정하는 맹자에게 하늘의 길(천도(天道))과 사람의 길(인도(人道))를 잇는 것은 중요했다. 이것은 곧 성(性)에 대한 이론으로 나타난다. **성(性)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도덕심道德心이다. 맹자는 진심盡心으로써 성에 달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실마리[端]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불쌍하게 여김), 수오지심羞惡之心(부끄러워 하는 것), 사양지심辭讓之心(양보, 사양하는 것), 시비지심是非之心(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사단四端이라고 하며, 이런 마음이 양심良心이다.

▲ 고자(맹자의 논적)의 반격

- 인간이 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두고서 고자告子와의 논쟁이 있다. 고자는 인간의 동정심은 현실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 형이상학적 도덕심을 부정했다. 식색성야(식욕과 색욕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두 욕망임)를 강조했다. 사단(四端)은 인간의 동정심일 뿐, 그것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기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기울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자: 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길을 내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길을 내면 서쪽으로 흐른다. 인성의 선악에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서의 구분 이 없는 것과 같다.”

▲ 맹자의 재반격

-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도 애초부터 선한 존재이다. 원래는 선한데 형세나 정황에 따라 악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맹자: 물은 정녕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상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착함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고 사람이 착하지 않음이 없음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지 않음이 없음과 같다. 이제 물에 압력을 가하여 튀어 오르게 한다면 이마를 지나치게 할 수 있고, 물길을 막아 거꾸로 흐르게 한다면 산꼭대기도 오르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이 착하지 않게 된다면, 그 본성이 바뀌는 것도 이런 것이다.”(고자상 2)

▲ 맹자의 의지(意志)

- 그러나 性이 어떤 추상적 본질로서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性에는 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맹자는 **의지意志를 중시**하며 더불어 **기氣를 중시**하기도 한다. “맹자: 고자는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 기에서 찾지 말라’ 하였는데,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 기에서 찾지 말라 함은 옳지만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서 찾지 말라는 말은 옳지 않다. 대저 의지란 기의 통수자統帥者다. 기는 신체에 충만 되어 있다. 대저 의지는 지극한 것이고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를 견지하고, 자신의 기를 난폭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공손추상 2) 즉, 마음이 더 상위에 있다는 사상으로 일종의 유심론철학(현대의 관념론 철학과 유사)이다. 의지를 통해서만이 성이 의미가 있다. 결국 맹자는 천천에 대한 형이상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성性的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 순자

- 이에 반해 순자는 천의 의미를 인정하기 않으며 천도와 인도의 분리를 주장했기에, 인성론에서도 다른 생각을 전개한다. 순자에게 인간은 본성상 악한 존재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性惡) 인간은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질투하고 시기하기에 타인을 해친다.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 휘둘린다. 여기에서 미묘한 것은 순자에게도 인간의 선한 잠재성은 인정된다는 점이다. 순자에게 성악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 자연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성 역시 존재한다. 맹자가 보기에 인간은 자연발생적(작위가 아닌, spontaneous)으로 선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하다고 본다. 즉 인간이란 자연적-현실적으로는 악하지만, 그 악함을 고쳐나갈 수 있는 선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함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작위(作爲)가 필요하다**. 이 작위를 잘 가져가면 “길거리의 사람 누구나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소인이라도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성악) 이는 철저한 작위의 철학이다. 교육, 제도, 법, 사회구조 등을 통해 인간을 선하게 고칠 수 있다고 보았다.

▲ 맹자의 경세(經世) 사상

- 맹자와 순자의 이런 차이는 경세(經世)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맹자는 **내면의 도덕심을 보다 강조**한다면, 순자는 제도적 작위를 더 강조한다. 맹자에게 치세의 근본은 사람들의 도덕심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바른 정치는 올바른 교육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만 못하다. 올바른 정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나 올바른 교육은 백성들이 좋아한다. 올바른 정치는 백성의 재산을 얻으나, 올바른 교육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진심상 14) 이와 나란히 정치에서도 패도정치를 비판하고 일관되게 **왕도정치를 주장**했다. “힘으로써 어짐을 가장한 것이 패霸이니 霸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가져야 한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것이** 왕이니 왕은 대국이 필요하지 않다. 탕왕은 사방 70 리로 문왕은 100 리로 왕이 되었다. 힘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심복(心服)시킴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여 복종함이다. 덕으로써 사람을 굴복시키면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함이다.”(공손추상 3) “천시(天時, 운을 의미)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 성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얻은 사람은 천시를 얻은 것이다. 성이 지리를 갖추고 있으면 정복하기 힘들다. 그러나 성안의 사람들이 인화가 되지 않는다면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맹자는 왕들에게 인정(仁政)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맹자는 덕치(德治)를 주장했고 왕이 덕을 잃어버리면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다. 덕을 잃어버림의 기준은 백성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다음이며, 임금의 가법다.”(진심하 14) ‘여민동락(與民同樂)’은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질적인 맥락에서는 정전제(井田制)(토지를 아홉 등분해서 나눔)를 주장했으며, 공세법(貢稅法)(평균을 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조세법(租稅法)을 강조했다.

▲ 순자의 경세(經世) 사상

- 순자는 맹자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철학**을 제시했다. 순자에게는 개개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제도 자체의 개선이 중요**했다. 예의(禮義)란 곧 개개인의 욕망을 순치시키고 치세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이다. 수신을 해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의에 따름으로써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타율적 예의라는 한계가 있음). 순자에게서 예(禮)란 신분질서를 포함(유교는 기본적으로 신분질서를 전제)하며 목자와 반대되는 분분의 사상을 폄했다. 이 예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지만 인간의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인이 생각을 쌓고 작위를 오랫동안 익혀 예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한다.”(성악) 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며 부국(富國)을 만드는 것이 치세의 기초이다. 물질적 빈곤이 인간의 자연발생적 악함을 불러온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순자는 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시 마음에 호소하는 맹자와는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했다. 법과 도덕은 반비례하며, 세상이 각박할수록 법이 세분화된다. 형벌(刑罰)의 공정한 운용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순자는 법가사상가가 아니며, 법이 인의(仁義)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좋은 법이 있어도 어지러워지는 일은 있으나, 군자가 있으면서도 어지러워진다는 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왕제) 결국 순자는 왕도(王道)를 기본으로 하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가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겠다. 태평성대에는 맹자의 사상이 중요하고 난세에는 순자의 사상이 중요해진다. 맹자가 공자를 이어 전형적인 유교사상을 만들어냈고 그 후 유가 사상의 기초를 형성했다면, 순자는 유가사상을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비유했다고 할 수 있다.

